

맨체스터 시티는 영국의 한가운데 위치한 인구 70만의 도시다. 맨체스터 시티 주변에는 맨체스터를 생활권으로 하는 군소 도시들이 형성돼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과 맨체스터 시티를 합쳐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라는 광역 행정권을 형성한다. 맨체스터의 인구는 320만 정도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다. 글 박준형 사진 박재찬



# 영국 제2의 도시 맨체스터를 가다

박지성이 활약하고 있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는 영국의 심장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궤도열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멋스러움을 더하고, 옛것과 최첨단 건축물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맨체스터는 같은 영국이라도 런던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Town Hall In Manchester City 맨체스터 타운 홀은 도시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업무를 보는 곳이다. 건축가 알프레드 워터하우스(Alfred Waterhouse)에 의해 1877년 완성됐다. 이 건축물은 빅토리안 고딕 기법을 그대로 재현한 대표적인 건물로 포드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의 양식을 따랐던 기존의 영국을 거부하고 이전의 미술을 부활시킨 매덕스 브라운(Madox Brown)의 인상적인 변화가 그려져 있어 건축물 내부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또한 이 건물은 촬영이 금지된 웨스트민스터 궁을 대신해 영국 정치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자주 쓰인다고 한다.



### Chinatown In Manchester City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꼭 있는 것 중 하나가 차이나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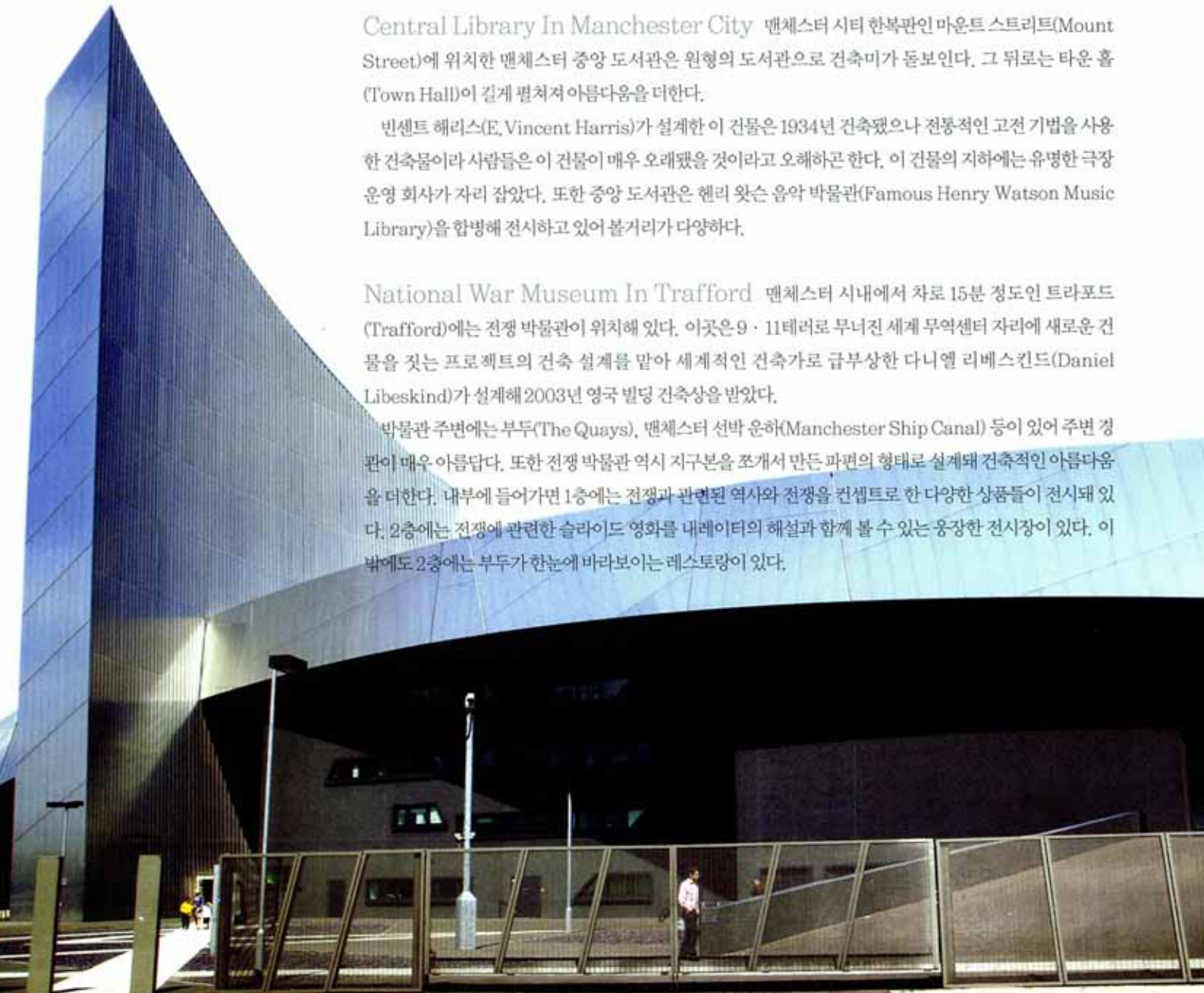
맨체스터 시티 포틀랜드 거리(Portland Street)에도 영국 북쪽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위치해 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있는 커다란 아치형의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1987년 중국이 맨체스터와 우호 증진을 위해 명제국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만든 것이다. 맨체스터의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한국, 일본, 태국 등 다양한 동양의 음식점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차이나타운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중국의 연예인과 관광객들이 모여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용춤을 즐긴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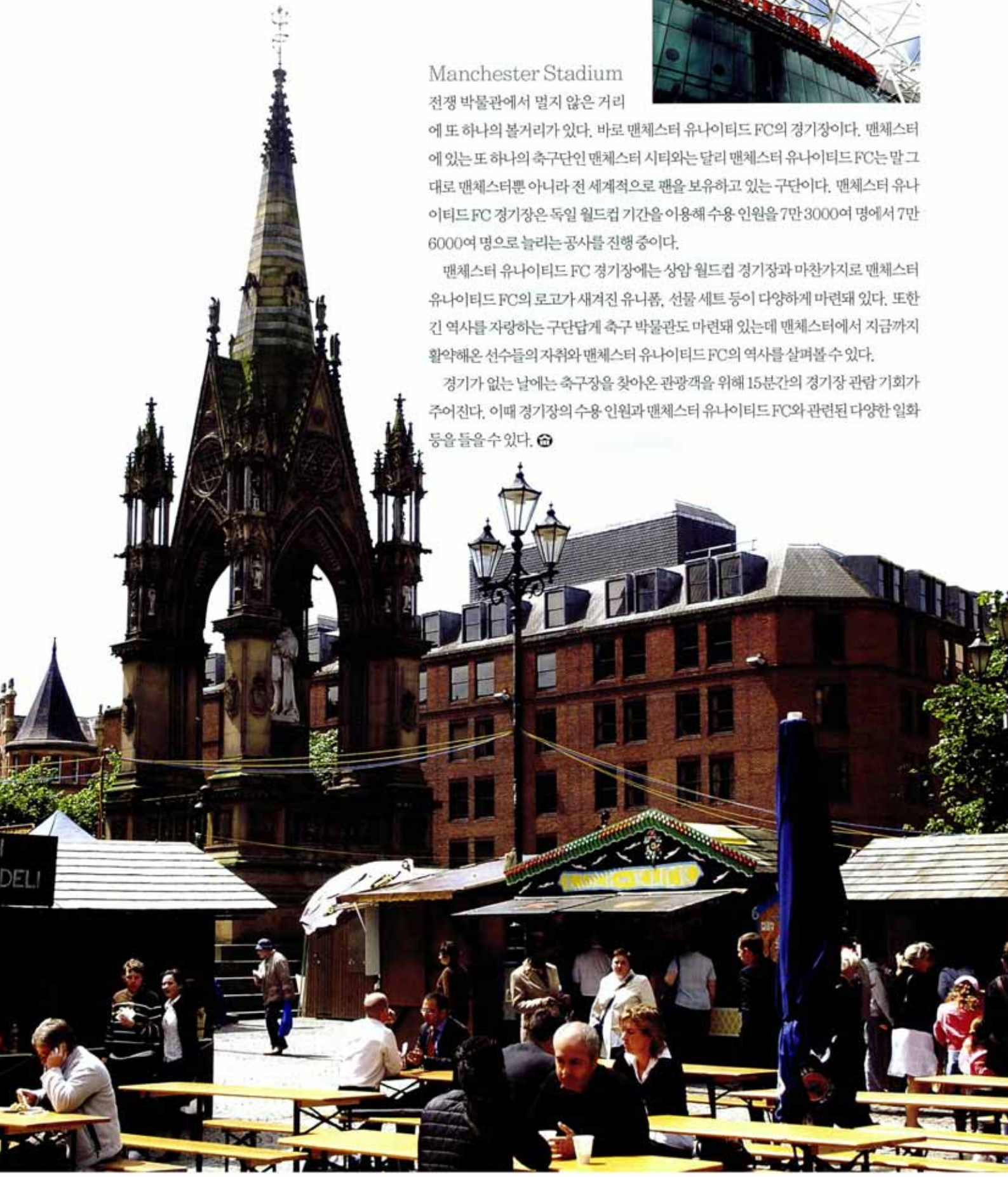
**Central Library In Manchester City** 맨체스터 시티 한복판인 마운트 스트리트(Mount Street)에 위치한 맨체스터 중앙 도서관은 원형의 도서관으로 건축미가 돋보인다. 그 뒤로는 타운 홀(Town Hall)이 길게 펼쳐져 아름다움을 더한다.

빈센트 해리스(E. Vincent Harris)가 설계한 이 건물은 1934년 건축됐으나 전통적인 고전 기법을 사용한 건축물이라 사람들은 이 건물이 매우 오래됐을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이 건물의 지하에는 유명한 극장 운영 회사가 자리 잡았다. 또한 중앙 도서관은 헨리 왓슨 음악 박물관(Famous Henry Watson Music Library)을 합병해 전시하고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다.

**National War Museum In Trafford** 맨체스터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인 트라포드(Trafford)에는 전쟁 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9·11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의 건축 설계를 맡아 세계적인 건축가로 급부상한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가 설계해 2003년 영국 빌딩 건축상을 받았다.

박물관 주변에는 부두(The Quays), 맨체스터 선박 운하(Manchester Ship Canal) 등이 있어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또한 전쟁 박물관 역시 지구본을 쪼개서 만든 파편의 형태로 설계돼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내부에 들어가면 1층에는 전쟁과 관련된 역사와 전쟁을 컨셉트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돼 있다. 2층에는 전쟁에 관련한 슬라이드 영화를 내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볼 수 있는 웅장한 전시장이 있다. 이 밖에도 2층에는 부두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다.





## Manchester Stadium

전쟁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경기장이다. 맨체스터에 있는 또 하나의 축구단인 맨체스터 시티와는 달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는 말그대로 맨체스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경기장은 독일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 수용 인원을 7만 3000여 명에서 7만 6000여 명으로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경기장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선물 세트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또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구단답게 축구 박물관도 마련돼 있는데 맨체스터에서 지금까지 활약해온 선수들의 자취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축구장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해 15분간의 경기장 관람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경기장의 수용 인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 등을 들을 수 있다. ☺